

금호타이어 노조 “질타·조언 달게 받겠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8기 지회 집행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를 지키기 위한 조언과 노조가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질타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발표된 이후에는 해외매각 저지를 위해 고공농성을 포함한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

회사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노력 할 것 약속

“언론, 관심 거두지 말고 감시자 역할 수행”

의 매각과정에 개입해 국익을 저버리고 해외매각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힘만으론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동의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 집행부는 “경영정상화”에 입하면서 남다른 의지도 표명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경영이 정상

화되고 건실하게 국내에 존속되도록 하는 문제는 지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면서 “지난 6개월의 과정보다 어찌 보면 이 길이 더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계속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언론이

금호타이어에 보여준 관심을 거두지 말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국내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응원만은 바라지는 않겠다”면서 “노조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단호하게 질타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집행부는 “조만간 지회의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기아차, 中 전략형 SUV

‘신형 스포티지’ 재공략

기아자동차가 중국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스포티지(중국명 즈파오)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의 중국 합자법인 동평위 에다기아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시안 그린란드 피코 국제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중국 주요 매체 기자단과 딜러 대표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스포티지 출시 행사를 가졌다.

신형 스포티지는 스포티지의 후속 모델로 ‘지혜롭게(智)달린다(?)’는 의미의 기존 모델 현지 판매명 ‘즈파오’를 계승해 ‘신형 즈파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스포츠지는 2007년 출시 후 지난 달까지 중국시장에서 스포티지 35만9980대, 스포티지R 53만1556대 등 89만1536대가 판매되며 인기를 누려왔다.

기아차는 기존 스포티지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신형 스포티지의 출시를 통해 성능, 품질,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고객들을 주 타깃으로 삼아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형 스포티지는 ▲도심과 이웃 도어에 모두 어울리는 강인하고 균형 잡힌 외관 ▲첨단 주행지원 시스템 ▲바이퍼와의 협업으로 구현한 카네이션 등을 통해 고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췄다.

뉴스

보해, 700ml 대용량 일새주 한정판 출시

새로운 천연임반수 샘물 확보 기념...가성비 높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17일 새로운 천연임반수 샘물 확보를 기념해 700ml 대용량 일새주를 특별 한정판으로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새주의 맛과 향은 유지하면서 가성비 높은 제품이다.

일새주 700ml는 기존 일새주(360ml)의 두 배에 이르는 용량이

지만, 출고가는 1980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기존 일새주는 병값 포함 1116.9원이다.

한정판 제품은 3만5000병만 생산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지하 253m 천연임반수 수원지 인근에서 새로운 샘물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제품을 출



시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일부 주류업체는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도수 인하’라는 방법으로 재료를 아껴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하지만 보해는 경기가 여전히 좋지않은 상황에서 서민의 술인 소주라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AI 탑재 공기청정기 뜬다”...롯데하이마트, 매출 두배↑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1~3월) 공기청정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3월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AI 탑재 등 공기청정기 제품 발전도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공기청정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늘었다.

최근 공기청정기는 AI 기능을 탑

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공기청정기에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결합하거나 사물인터넷(IoT) 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여러 제품을 분리하거나 결합해 쓸 수 있는 모듈형 공기청정기도 나왔다.

롯데하이마트는 ‘미세먼지 철벽 방어 양코르 기획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모듈형 공기청정기, 사물인터넷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의류건조기, 건타입 무선 청소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 2만 4000여대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손기홍 롯데하이마트 생활가전팀장은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사용자 편의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 등 다양한 공기청정기가 출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가 강화된 다양한 공기청정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트 도그와 프리허그하세요

꽃이 만발한 봄을 맞이하여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내달 22일까지 1층 갤러리에서 온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팝아트스트리트의 ‘해피 파라다이스’를 전시한다. 갤러리 전시와 더불어 백화점 1층 중앙통로에 떠있는 설치작품 ‘하트 도그’는 미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프리허그를 해주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女기업, 男기업보다 생존율 낮아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편중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생존율이 낮고 영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경제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 현황 및 활동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 수와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면서 성장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여성기업 수는 149만7000개로 1997년 대비 61.9% 증가했다. 전체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은 37.9%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향도 있었다. 여성기업의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30.1%, 도소매업 27.9%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기업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2015년 기준 성별 기업 생존율을 보면 남성기업은 1년 생존율 64.0%, 2년 52.0%, 3년 42.0%, 4년 35.8%, 5년 30.4%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여성기업은 1년 생존율 60.4%, 2년 46.4%, 3년 35.6%, 4년 29.3%, 5년 24.0%로 모두 남성기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재무적 특징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하지만 경영지표는 우위를 보였다.

창업기업 중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은 2억3500만원으로 남성기업 5억2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제조기업 역시 여성기업 평균자산은 34억7100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43억5400만원보다 적었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